

2023 SPRING Vol.57

# 박물관풍경

## 風景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 재현의 재현

개항 누리길

사진 조오다(편집위원)



## CONTENTS

**표지스토리**

1904년 제물포 부두에서 물건을 나르던 조선인의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개항 이후 제물포에는 외국인만 몰려든 것이 아니었다. 일자리를 찾아 많은 조선 사람이 제물포를 찾아왔고, 지게꾼이 되어 낯선 서양 물건을 나르는 일을 했다.

04 | **박물관 소식**06 | **소통이 미래다**08 | **기획 I**  
해양의 관점에서 본 인천 개항12 | **기획 II**  
제물포 각국 조계의  
외국인들과 신동공사16 | **기획 III**  
개항장 인천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들20 | **인천인터뷰**

⑤ 마음이 쉬는 시간 '마쉬'를 운영하는  
자매 김미영 & 김지영

24 | **인천기자수첩**

① 몰랐거나 모른 척했거나  
- 인천의 첫인상

28 | **시네마인천**  
⑦ 〈보는 것을 사랑한다〉32 | **전시 리뷰**34 | **박물관 일정**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유동현 발행일 2023년 3월 10일

편집위원 김성이, 김유나, 배성수, 이성용, 정미리, 조오다, 최영애 교정교열 김시연 제호 이태용 디자인·인쇄 디자인하다MK

주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전화 032-440-6759 이메일 ic-museum@naver.com

구독신청 전화 혹은 이메일



## MUSEUM NEWS



### iii 새로운 볼거리를 만나러 인천시립박물관으로 오세요

인천시립박물관은 지난 2022년 12월, 조선시대에서부터 일제강점기까지의 인천 역사를 보여주는 상설 전시 역사 2실을 개편했다. 최근의 역사 연구 내용 반영은 물론이고, 그동안 선보이지 않았던 유물을 공개하여 다채로운 모습으로 구성하였다. 박물관을 찾는 시민들이 인천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iii '유퀴즈' 김동우 작가에게 직접 듣는 전시 비하인드

인천시립박물관은 한민족 공식 이민 120주년을 기념하여 2022년 11월 22일부터 2023년 2월 5일까지 국외 독립운동 유적지와 그 후손들의 모습을 기록한 김동우 사진작가의 작품을 전시로 선보인 바 있다. 우연히 발견한 독립운동 현장을 마주한 이후 누군가 기록해야 비로소 역사가 될 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작업을 이어온 김동우 작가. 사진에 담겨 있는 숨은 이야기를 1월 14일, 2월 5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iii '다시, 비상'하려는 인천 대표 박물관과 축구 구단의 만남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가 만들어진 지 20년이 됐다. 지난 2월 9일, 인천시립박물관은 인천유나이티드FC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인천유나이티드 20주년 기념 전시 〈다시, 비상〉 개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iii 인천 근대 각석의 흔적을 찾다

인천시립박물관은 먼 미래에 역사가 될 우리 시대의 모습을 조사해 1년에 1권씩 조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2022년에는 제물포 개항 이후부터 광복 이전까지 선정비,功德비, 묘지석, 정초석, 표지석 등의 인천 지역 각석을 조사하고 제35집 『인천의 근대 각석』을 발간하였다. 이번 조사를 계기로 향후 관련 연구가 지속되길 바란다.

## MUSEUM NEWS



### 미술관 관람을 스마트하게!

송암미술관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인 '스마트 미술관 기반 조성사업'의 결과를 2분기 중 관람객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스마트미술관의 주요 기능은 3D웹북과 온라인 전시관으로 구성된다. 전시실을 360도 영상으로 보여주는 VR 투어와 AI 도슨트의 전시 설명, 고화질 실감형 미디어아트와 3D 기술을 활용한 유물 해설 등 폭넓은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 검단신도시박물관을 만들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다.

지난 1월, 검단신사박물관은 인천도시공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검단신도시박물관(가칭) 건축 및 전시 설계·시공은 물론이고, 전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인천도시공사는 2026년 준공을 목표로 검단신도시박물관 건립을 준비 중이다. 이후에는 인천시립박물관에 이관되어 운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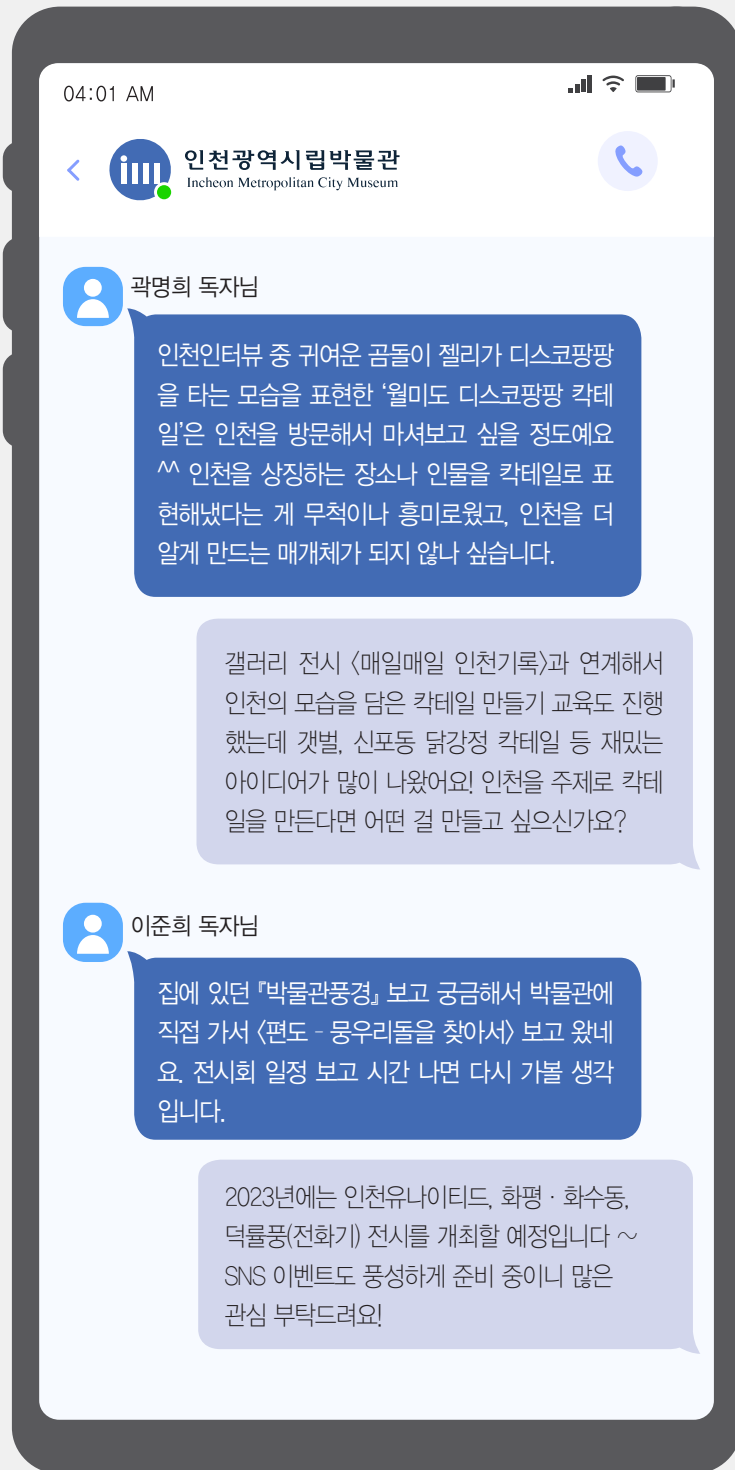
### 한민족 첫 이민 장소인 하와이에서 특별한 전시 개최

2022년은 인천에서 한민족 첫 공식 이민선이 출항한 지 120주년 되는 해였다. 이에 한국이민사박물관은 첫 이민의 도착지였던 하와이 현지에서 〈제물포에서 포와로, 다시 인천으로〉 특별전을 선보였다. 인천시 관계자와 하와이 동포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식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전시는 한국일보 하와이지사에서 2023년 3월 31일 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 기나긴 교육과 시험을 통과한 인천도시역사관의 전문 도슨트!

인천도시역사관은 지난 1월 8일, 2023년 전시해설 자원봉사자 위촉식을 진행하였다. 올해 활동할 자원봉사자는 32명이며, 5주간 진행된 양성교육 이수 후 시연평가를 통과하여 위촉되었다. 인천도시역사관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인천의 역사를 소개하는 멋진 자원봉사자가 되길 기대한다.



## 이번 호

## 『박물관풍경』

## 여러분들은

## 어떻게 보셨나요?



QR코드를 찍으면  
독자의견을 남길  
수 있습니다.



추첨을 통해 열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도 보내드릴게요.



# 인천 개항 140주년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일부 나라들과 교류하던 조선  
그런 조선의 항구가 열렸다.

인천은 140년 전에  
부산, 원산에 이어 세 번째로 개항되었다.  
외국 선박들은 '제물포'라 불리던  
지금의 인천역 앞바다에 닻을 내렸다.







# 해양의 관점에서 본 인천 개항

글 이영호(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올해는 1883년 인천이 개항된 지 꼭 140년이 되는 해다. 작은 포구 제물포가 개항장이 된 뒤 인천은 동아시아 굴지의 국제도시로 성장했다. 그동안 개항도시가 식민도시를 거쳐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논의는 활발했다. 그에 비해 인천이 개항장이 되기까지 동아시아 해역에서 일어난 역동적 변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다. 서양 세력이 한국의 문호를 개방시키기 위해 동아시아 해역을 거쳐 한반도로 접근하고, 그 틈을 이용하여 일본이 한국의 개항을 강요하고, 그리고 인천이 개항장으로 설정되는 과정을 제물포의 장소성을 염두에 두면서 해양의 관점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영국은 아편전쟁에서 승리한 후 1842년 난징조약을 통해 청의 다섯 개 항구를 강제 개항시켰다. 이후 동아시아 해역은 격랑에 휩싸이고 그 파고는 조선 해역에까지 미쳤다. 서양 제국은 조선 해역을 두 가지 방향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하나는 동아시아 해역을 둘러싼 열강의 대립 속에서 조선 해역의 전략적 가치를 활용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서해안에서 조선의 수도로 가는 길목을 군사적으로 장악하려는 방향이었다. 전자는 영국의 전략이고, 후자는 프랑스의 전략이었다.

## 영국 함선, 서해안에 나타나다

영국은 19세기에 들어와 청과 통상교섭을 하기 위해 청의 동쪽 황해 연안을 측량하면서 조선의 서해 연안에도 관심을 두었다. 1816년 영국 해군이 청의 산둥반도에서 출발하여 황해도의 백령도·충청도의 격렬비열도를 거쳐 보령 앞 바다에 이르는 항로를 탐색한 뒤, 1832년에는 영국 동인도

회사 상선이 같은 해로를 따라 탐사하면서 주민들과 접촉하고 기독교 선교도 시도했다. 이들 영국 배는 서해안을 탐사했지만, 수많은 섬이 즐비한 경기만 안쪽의 인천해역으로는 아예 들어오지 못했다.

난징조약으로 청의 항구를 개항시킨 영국 정부는 동아시아

▼ 로즈가 작성한 한강에 이르는 수로



해역을 측량할 필요를 느꼈고, 이에 군함 사마랑호를 파견했다. 사마랑호는 1845년 싱가포르·필리핀·류큐를 거쳐 제주도에 도착하여 지형을 조사한 후 거문도에 이르렀다. 이때 영국은 거문도의 전략적 중요성을 확인하고 여러 장의 해도를 작성했다.

이후 러시아, 미국 등도 거문도를 탐사하여 그 전략적 중요성에 공감했다. 조선이 개항한 후인 1885년, 러시아의 남하를 막기 위해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한 것은 40년 전의 탐사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이처럼 영국은 19세기 전반에서 후반에 걸쳐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해역을 전략적으로 활용하고자 했다.

## 프랑스 함선, 강화도·한강으로 들어오다

인도차이나 식민지 지배에 집중하던 프랑스가 무슨 이유로 서해안에서 수도 서울로 가는 길목을 장악하려 했을까? 그것은 가톨릭 선교 때문이었다. 1839년 파리외방선교회 신부 세 명이 한강 새남터에서 효수당한 사건이 일어났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프랑스 정부는 1846년 세실 제독의 함대를 파견했다. 세실 함대는 영국과는 달리 남쪽 제주도로부터 서해안으로 올라왔다. 보령 앞바다 외연도에 머물며 프랑스 신부를 살해한 책임을 추궁하는 서한을 조선 관리에게 전달했다. 청의 항구가 개항된 이후였으므로 통상을 요구하는 서한도 작성하여 함께 조선 측에 제시했다. 1846년에는 서한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프랑스 함대가 다시 서해안으로 들어오다가 고군산열도에서 좌초되기도 했다. 1856년 프랑스의 인도차이나 함대 사령관 게랭은 조선 식민지화를 위한 조사를 위해 서해안을 탐사하고 덕적군도 앞까지 이르렀다.

결국 1866년 대원군이 천주교 신부와 신도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소위 병인박해를 맞아, 프랑스 함대는 이제까지 프랑스가 탐사한 지도를 참조하고, 또 조선인 천주교 신자를 앞세워 강화도의 염하를 지나 한강 양화진에 이르는 해로를 확보했다. 그리고는 곧 조선을 침략하여 강화도를 점

령하는 병인양요를 일으켰다. 가능하다면 조선을 식민지로 삼는 전략도 배제하지 않았다.

병인양요 이후 덕적도에서 월미도·영종도를 거쳐 강화도와 한강에 이르는 인천해역의 수심과 해로는 서양 여러 나라에 모두 노출되었다. 김포·부평·인천 등지의 육지 지형도 파악되었다. 1871년 미국 함대는 강화도를 점령하는 과정에서 인천지역의 지리적 위상을 다시 한번 자세하게 파악했다.

## 일본 함선, 조선의 문을 강제로 열다

일본은 1868년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뒤 조선을 하위에 두는 새로운 국제관계를 요구했다. 조선이 거부하자 일본 내에서 정한론이 일어났다. 일본 정부는 정한론을 채택하지 않았지만, 조선을 강제 개항시키는 강경정책은 유지했다.

그 배경에 1871년 일본과 청이 대등한 국제관계로서 체결한 청일수호조규가 놓여 있다. 이미 병인양요 때 프랑스의 조선 침공을 청이 막지 못하고 방치한 점에서 조공국의 책봉국에 대한 종속성은 부인된 셈이었다. 청일수호조규에서 조차 청과 조선의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가 무기력한 것으로 확인되자, 일본은 조선을 침공해도 청의 개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해양의 관점에서 보면 병인양요·신미양요는 중요하다. 일본은 프랑스 해군이 1868년 간행한 인천해역 일대의 해도를 입수했다. 이 해도는 미국이 1871년 강화도를 점령할 때 활용되었을 뿐 아니라 일본의 해군성에도 흘러 들어갔다. 일본은 조선의 왜관과 대마도를 통해 조선에 관한 정보를 수집했었는데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정보는 없었다. 프랑스와 미국의 해도를 입수하여 수도 서울의 입구를 확인한 일본은 직접 탐사하는 한편 무력 도발하여 분쟁을 일으키고자 작전을 짰다.

일본은 1875년 영국에서 수입한 군함 운요호를 조선 해역에 파견했다. 운요호는 동해안과 남해안을 측량한 뒤 서해안으로 거슬러 올라왔다. 답수를 구한다는 명분으로 염하



입구의 강화도 초지진으로 접근하다가 조선군의 포격을 받아, 그 보복으로 영종도를 초토화한 후 일본으로 돌아갔다. 일본은 이 사건을 빌미로 1876년 2월 강화도조약을 강요하여 조선을 강제 개방시켰다.

## 제물포, 개항장이 되다


강화도 회담을 위해 파견된 일본 사절단의 함선은 6척에 이르렀는데 회담 전부터 이미 서해 연해 수로를 측량하고자 계획했다. 이들 함선은 영역을 나누어 남양만에서 강화도의 염하에 이르기까지 수로를 자세하게 측량했다. 김포에서 한강에 이르는 수도도 파악했다. 육지에 상륙하여 깃발을 꽂고 나침반을 활용하여 지형도를 그리기도 했다.

이때 일본 함선은 제물포 주변도 상세하게 측량했다. 제물포와 그 북쪽의 성창포, 그리고 월미도·소월미도 외에 제물포 앞 갯벌 사이에 있는 사도·분도·원도 등 작은 섬도 지도에 표시했다. 조수간만의 차이에 따라 드러나는 갯벌의 윤곽도 확인했다. 제물포와 성창포에 배를 정박할 수 있는지도 조사했다.

강화도조약에서는 조선 연해안에 대한 일본의 수로 측량과 지도 제작이 무제한 허용되었다. 이렇게 불평등한 강화도조약에서부터 조선의 영토는 유린당하기 시작했다. 일본은 서해안의 개항장을 탐색한다는 명분으로 광범하게 탐사 측량했다. 월미도 서쪽, 서울로 올라가는 주 수로의 수심을 측량하여 대형 선박을 정박시킬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 주변의 영종도와 자연도·율도 등지의 수심·거리 등도 자세하게 측량했다. 염하를 통하지 않고 제물포에 상륙하여 서울로 향하는 육로도 개척했다. 그것은 나중에 경인로(京仁路)가 되었다.

일본은 금강 연안·아산만 일대를 조사한 뒤 개항장으로 인천연안을 최적지로 판단했다. 인천은 파도의 위험이 적고, 조류가 비교적 완만하고, 간만의 차가 심해도 작은 선박은 댈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보다 육로와 해로로 서울에 접근하는 데 편리한 점을 가장 중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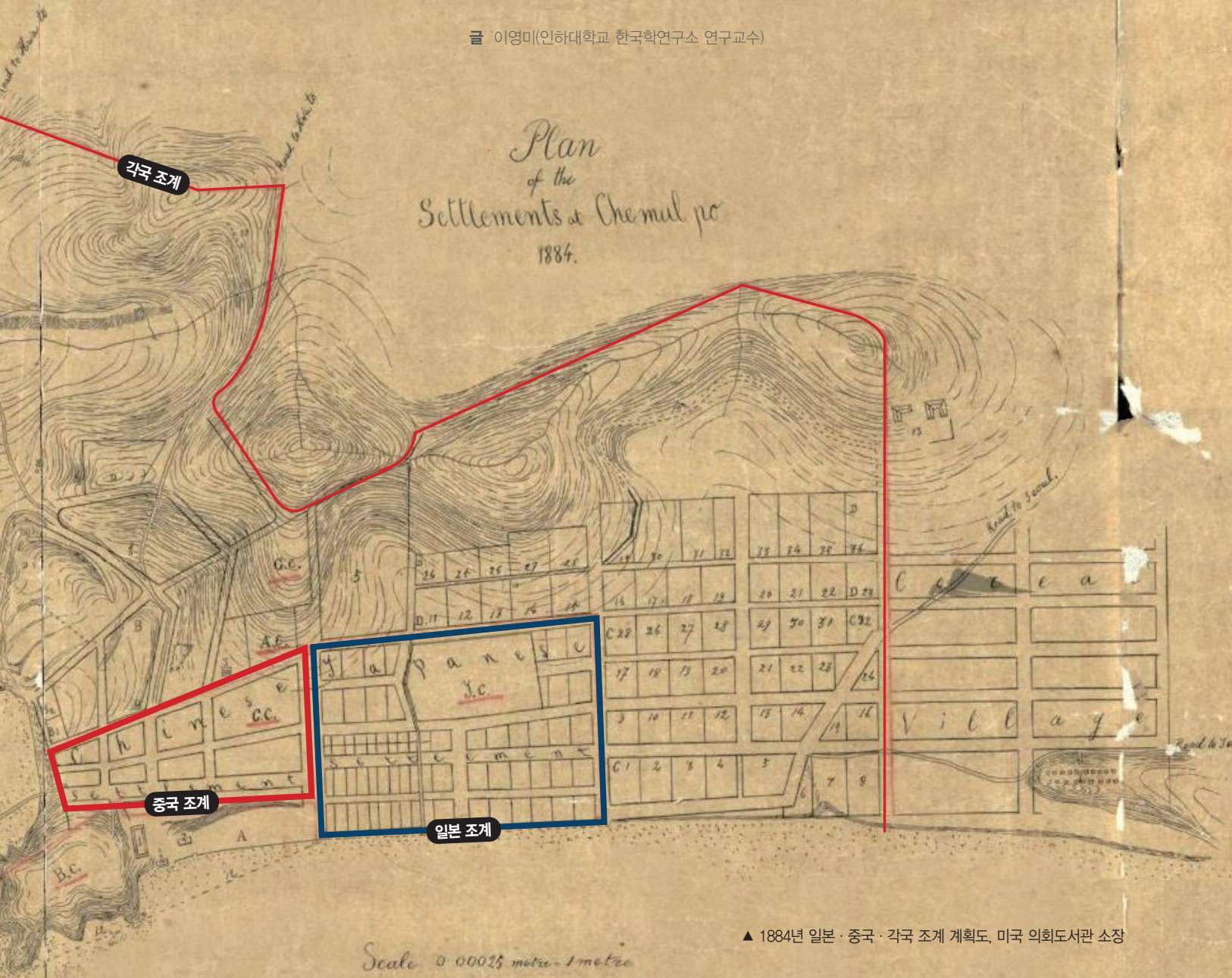
뒤늦게 조선 정부는 인천 연안의 방어를 강화하기 위해 화도진을 설치했다. 화도진에 제물포포대·북성포포대·괭이부리포대·호구포대·장도포대를 배치하여 연안으로의 상륙을 저지하려고 했다. 그렇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바로 그곳으로 일본 선발대가 상륙했다. 제물포포대 주변에 인천역과 세관이 들어섰다. 그 동쪽 해변에 일본 전관조계가, 북쪽 비탈면에 청국 전관조계가 배치되었다. 두 전관조계를 감싸안고 응봉산을 포함한 넓은 영역에는 각국 공동조계가 들어섰다. 일본과 청국의 전관조계가 별도로 설정된 것은 한반도에서 인천 개항장이 유일하다.

외국인 조계는 인천이 국제도시로 성장하는 토대였지만, 일제의 식민도시가 되면서 그 국제성과 개방성은 위축되었다. 여기서 자세히 언급할 여유는 없지만, 진정한 인천 국제도시의 탄생과 성장은 초창기의 조건을 활용하여 해방 후 긴 시간에 걸쳐 인천 시민이 각고의 노력으로 성취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제물포 각국 조계의 외국인들과 신동공사

글 이영미(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1884년 일본·중국·각국 조계 계획도, 미국 의회도서관 소장



1883년 1월 1일 인천은 부산과 원산에 이어 조선의 세 번째 개항장이 되었다. 인천의 작은 항구 제물포에는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위하여 해관(오늘날의 세관)이 세워졌고, 외국인 전용 거주 구역인 조계(거류지)도 설치되었다. 1883년 9월 일본 조계, 1884년 4월 중국 조계, 1884년 10월 각국 조계가 설치되었다. 각국 조계의 위치와 구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미국 의회도서관 웹사이트에 있는 왼쪽의 지도를 살펴보도록 하자. 왼쪽에 'Chinese Settlement'라고 쓰여 있는 가장 작은 구역 즉, 지금의 차이나타운 일대가 중국 조계였다. 중국 조계 바로 옆에 'Japanese Settlement'라고 쓰여 있는 곳이 일본 조계였다. 가장 오른쪽에는 'Corean Village'라고 쓰여 있는데, 이곳은 말 그대로 한국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었다. 그럼 각국 조계는 어디일까? 일본 조계, 중국 조계, 한국인 마을을 제외한 나머지 땅이 모두 각국 조계였다. 각국 조계의 전체 면적은 140,000평 정도였다.

조선 정부와 각국 외교관들은 각국 조계 부지를 등급에 따라 A, B, C, D의 4개 지역으로 나누고 각 지역을 A1~A3, B1~B4, C1~C32, D1~D38의 77개 구역으로 나누었다. 중국 조계 남쪽의 A 지역은 이미 해관이 들어서 있었던 관계로 자연스럽게 해관 당국의 차지가 되었다. 또한 A 지역 왼쪽에 'B. C.'라고 쓰여 있는 언덕은 영국이 영사관을 세우기 위하여 일찌감치 선점하였다. 'B. C.'는 영국 영사관(British Consulate)의 약자이다.

1884년 11월 7일 각국 조계 부지에 대한 첫 번째 경매가 열렸다. 개항한 지 2년도 되지 않아 외국인 인구가 적었던 때라 구매자는 한정되어 있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사람은 독일인 볼터(Carl A. Wolter, 1858~1916)이다. 볼터는 '세창양행'이라는 상호로 친숙한 마이어상사 인천지점의 책임자로, B1·B2·C28·D1·D18·D19·D29·D30까지 총 3,783평(12,506㎡)을 매입하여 곧바로 부동산 부자가 되었다. 또한 그는 회사 명의로도 상당히 많은 땅을 사들였다.

볼터와 같은 날 각국 조계 부지를 매입한 사람으로는 슈타인벡(J. Steinbeck), 뢰르젤(Fernand H. Mörsel), 타운센드(Walter D. Townsend, 1856~1918) 등이 있다. 슈타인벡은 1880년대 후반 제물포에 코레 호텔(Hotel de Corée)을 차린 오스트리아인으로 C10·C11(2,015㎡)을, 뢰르젤은 독일 출신의 해관원으로 C22(915㎡)를, 일본에서 온 미국인 무역상 타운센드는 D22(930㎡)와 D23(900㎡)을 장만하였다. 모두 볼터에 비할 바가 못 되었다.

1884년 11월 7일 이후 몇 년간에 걸쳐 각국 조계 부지가 거래되고 주민들의 수도 늘어났다. 이제 필요한 것은 각국 조계 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만들고 안전을 의결하고 업무를 집행할 자치 기관이었다. 이 자치 기관을 영어권 서양인들은 'municipal council'이라고 불렀고 조선에서는 '신동공사(紳董公司)'라고 불렀다. 신동공사는 처음 각국 조계를 설치할 때부터 만들기로 했던 것이며 당연직 위원 6명과 선출직 위원 3명으로 구성되었다. 전자는 조선 정부와 각국 조계 개설 조약을 체결한 미국·독일·영국·중국·일본



외교관, 그리고 조선 정부가 파견한 관료 1명이었고, 후자는 각국 조계에 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선출하는 임기제 대표였다. 또한 당연직과 선출직을 막론하고 제물포에 거주하는 위원 중 3명을 매년 집행위원회로 임명하여 신동공사에서 결의된 안건의 집행을 맡겼다.

1888년 12월 5일 신동공사의 초대 선출직 위원을 뽑는 선거가 일본 영사관에서 실시되었다. 이후 신동공사는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어 각국 조계의 여러 가지 사무를 논의하고 처리하였다. 사무라는 것은 심오한 것이 아니라 도로 정비, 배수 시설, 세금 납부, 규칙 제정, 해안 매립, 우물 설치, 치안 확대 등 주민들의 생활 조건과 직결된 것이 많았다. 1888년 12월 5일부터 1913년 11월 12일까지의 신동공사 회의록은 『제물포 각국 조계지 회의록』(전2권)으로 번역되어 있다. 비록 중간에 빠진 부분이 적지 않으나 신동공사가 어떤 사람들에 의하여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알려 주는 중요한 자료이다.

초창기 신동공사 회의는 주로 영국 영사관에서 열렸다. 그 이유는 각국 조계 안에 있는 유일한 영사관이 영국 영사관이었기 때문일 것이다. 앞에서 소개한 지도에 독일 영사관(German Consulate)의 약자인 'G. C.'와 미국 영사관(American Consulate)의 약자인 'A. C.'가 있지만,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실제로는 둘 다 세워지지 않았다. 미국인 무역상 쿠퍼(Charles H. Cooper)가 일찍이 영사관 건물을 지었지만, 미국 정부가 인천에 영사관을 세우지 않음에 따라 해관장 관사로 전용되었다.

신동공사는 전용 회관을 건축할 목적으로 1891년 5월 7일 1,082.97달러에 각국 조계 D44 구역(3,780㎡)을 매입하였다. 1892년 5월 10일 볼터가 방 4개, 경찰관 숙소, 별채, 창고 등으로 구성된 설계도와 견적서를 제시하면서 건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었다. 신동공사는 1892년 6월 7일 건축 입찰 공고를 내고 8월 25일 중국인 건축업자를 선정하였다. 회관 건축은 1893년 6월 하순 완료되었다. 각국 조계의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관들은 6월 30일에 입주하였다. 신동공사는 가구 구입 등으로 일정이 지체되어 11월 16일에야 신동공사 회관에서 첫 번째 회의를 열었다. 그 외중에 신동공사 회관의 위치가 좋지 않다며 토지와 건물을 팔자고 제안한 사람도 있었다. 초대 인천해관장으로 복무한 영국인 스트리플링(Alfred B. Stripling)이 그 장본인이다. 건물이 다 지어진 마당에 그런 말을 하다니! 그는 가끔씩 그렇게 다른 위원들의 동의를 얻지 못할 말을 하곤 했다.

신동공사 회관이 세워진 D44 구역은 처음 각국 조계가 개설될 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생긴 구역이다. 따라서 12쪽 지도에는 나오지 않고 1890년대 후반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다음 15쪽의 지도에서 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위치로 말하자면 인성여자고등학교 다목적관 주차장이다.

이 지도에는 당시 각국 조계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름이 일부 수록되어 있다(철자가 틀린 것이 종종 있다). 1892~1894년 인천해관장으로 일한 영국인 오스본(William M. Osborne), 1901~1905년 인천해관장을 역임한 프랑스인 라포르트(Emile Laporte), 영국 영사관 순경으로 일하다가 인천해관원이







# 개항장 인천에서 만들어진 한국어 교재들

글 · 사진 이숙(전주대학교 교수)

1883년에 제물포가 개항되고 조계가 설치되자 인천에 사는 외국인이 많아졌다. 인천에서 활동하던 감리교 선교사 존스(*George H. Jones*)는 *Korea Review* 1901년 1월호에서 그 당시 인천에 거주하던 외국인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다.

이 항구에 거주하며 인근 경작지의 소규모 채소밭을 소유한 중국인 채소 재배자가 상당히 많았다. 이들 중 대부분이 산둥 지방의 농부로, 봄이면 이곳으로 와 자신들의 토지에서 일하고, 겨울이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이들로 인해 이 항구의 중국인 거주자의 수가 지속적으로 변동하였다. 보통의 외국인 사회는 동아시아 지역의 다른 항구와 거의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다. 해관 직원, 영사들, 상인들, 그리고 선교사들이다. 이들의 거주지는 이 항구의 동부 끝 쪽에 있고, 거리와 하수시설이 잘 설치되어 있으며, 토지소유자들이 선택한 대표자들과 협정국 영사의 보호 관할 하에 있다.





외국인 거주민이 중국 농민 외에 해관 직원, 영사, 상인, 그리고 선교사로 구성된 것이 개항장 인천의 특성이었다. 그 중에서 서양인들의 수는 일본인이나 중국인보다 훨씬 적었지만, 이들이 개항 이후 여러 권의 한국어 교재를 인천에서 간행했다. 이는 동양 문화권에 중국인이나 일본인보다는 문화와 언어가 낯선 서양인이 한국에 대해 알아보려는 마음이 더 컸고, 뒤에 오는 동료 서양인에게도 한국어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도 컸기 때문이다. 외국에 파견된 선교사는 당연히 그 나라 말을 공부해야 토착인과 소통이 가능했으며, 한국에 온 선교사의 경우에는 3년 동안 한국어를 배워서 시험에 통과해야 정회원으로서 승급할 수 있었다. 그래서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컸다.

초기에 입국한 서양인들 가운데 한국에 관해 길고 짧은 논문을 많이 발표한 사람으로는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게일(James S. Gale), 헐버트(Homer B. Hulbert), 존스, 랜디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존스와 랜디스가 인천에 거주하며 활동했다. 언더우드·게일·헐버트는 주로 서울에 거주하며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한 선교사들이어서 그만큼 발표할 지면도 많았다. 그런데 주로 인천에 거주하며 활동한 존스와 랜디스가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존스는 미국에서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선교사를 지망해서 한국에 왔다. 20세의 최연소 선교사였기에 한국에서 개인 학습을 통해 대학 과정을 수업한 셈인데, 특히 한국어 수업을 통해 한국의 언어와 문학·문화·역사·종교·정치를 배운 끝에 미국 웨슬리안 대학교에서 명예 신학박사 학

위를 받을 정도로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 그에게 한국어를 가르친 교사가 바로 정동제일교회의 첫 번째 한국인 목사 최병헌이다. 대부분의 선교사는 3년 동안 정해진 한국어 수업을 마치고 어학시험을 통과하여 선교사 자격을 얻으면 한국어 공부를 그만두고 목회 활동이나 병원, 또는 교육 등의 실전에 투입됐다. 그러나 한국어 학습 속도가 가장 빨랐던 존스는 어학시험에 합격하고도 4년 4개월 동안 최병헌에게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의 문화와 종교를 배웠다. 최병헌도 존스를 따라 인천에 와서 한동안 활동했다.

감리교 못지않게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선교한 교단이 바로 영국 성공회이다. 성공회는 영국 해군 군종사제(軍宗司祭)로 활동하다가 1889년 한국의 첫 번째 주교로 승인된 코프(Charles John Corfe, 고요한) 주교가 리텔 신부의 『한불사전』의 동사 활용편 「하다」를 성공회 교리서인 『조만민광(照萬民光)』에 적용하는 학습서를 편찬했다. 또한 의료선교사 랜디스는 코프 주교의 지시로 1890년 인천에 파견되어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성누가병원(St. Luke Hospital, 樂善施醫院)을 설립하고, 주민들로부터 약대인(藥大人)이라는 존칭으로 불릴 정도로 사랑과 존경을 받았다. 그는 한국어를 빨리 배워 33세에 세상을 떠날 때까지 24편이나 되는 한국학 관련 짧은 논문을 썼다.

랜디스가 33세 젊은 나이에 장티푸스에 걸려 세상을 떠나자, 그의 후임으로 인천에 파견된 의료 선교사 카덴도 한국어를 공부해 1901년에 100가지 문장과 어휘를 담은 *Hundred Corean Phrases, With Vocabulary* 이라는 제목의 책을 성공회 출판사에서 간행했다. 제목 그대로 문법서

라기보다는 단어장을 덧붙인 회화책이다. 랜디스가 소장하던 장서 227권을 제물포 선교회에서 일괄 구매하여 ‘랜디스 문고’를 설치했으므로, 카텐은 비교적 쉽게 이 책을 편찬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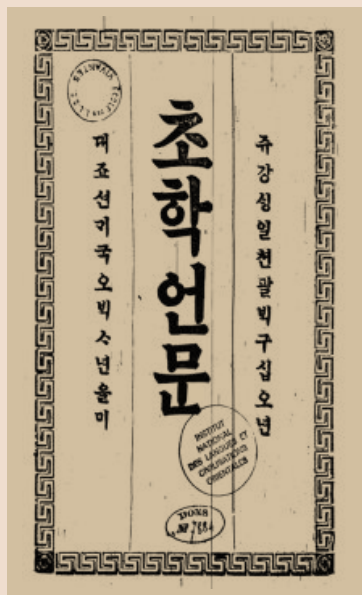
성공회 선교사가 다른 교단에 비해 숫자가 적으면서도 한국어나 한국학에 관해 많은 성과를 낸 이유는 코프 주교의 선교정책과 관련이 있다. 그는 젊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대한 이해 없이 직접 선교에 뛰어드는 것을 경계하면서, 첫 6년간은 전도의 열정을 억제하고 한국인의 언어와 문학, 습관, 사고를 공부하라고 지시했다.

존스와 랜디스가 비슷한 시기에 수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과 별도로, 같은 시기에 한국어 학습 교재들이 인천에서 편찬됐다. 첫번째 저자는 1884년부터 8년 동안 인천 주재 영국영사관 부영사로 근무한 스콧(J. Scott)이다. 선교사보다 앞서 외교관 신분으로 한국에 들어온 스콧이 그 당시 한국어 학습에 참고할 만한 책이라고는 프랑스 신부들에 의한 문법서와 사전, 그리고 로스 목사가 중국에서 지은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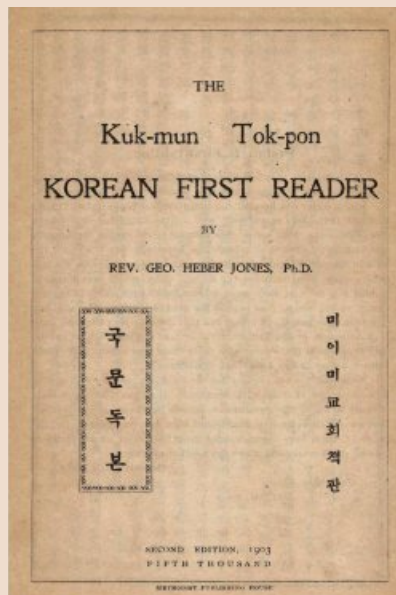
어 회화책이 전부였다. 그러나 불어로 된 문법서와 사전은 영어권 화자들이 배우기에 적합하지 않았고, 로스 목사의 한국어 회화책은 서북 방언이 많이 섞여 있어 서울이나 인천에서 사용되는 언어와 거리감이 있었다. 스콧은 외교관의 안목으로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서양인들이 물밀듯 밀려올 것을 예견하고, 영어권 화자를 위한 한국어 문법서 『언문말책』과 『영한조던』을 1887년과 1891년에 잇달아 출간했다.

그 뒤에 인천에서 선교사로 활동하던 존스 부인(Mrs. G. H. Jones)이 1895년에 『초학언문』을 간행했다. 초간본은 서문이나 저자명 없이 간행됐는데, 감리교출판사에서 간행한 연대 미상의 8판본에 ‘존스부인저술’을 밝혔다. 그 이후 1909년에도 개정판이 간행돼, 꾸준히 간행되며 많은 독자에게 읽혔음을 알 수 있다.

존스도 아내가 1895년에 쓴 『초학언문』의 자매편이라고 할 수 있는 『국어독본』을 1903년에 간행하고, 미국에 귀국한 뒤인 1914년에 『영한조던 (An English-Korean



▲ 『초학언문』 표지, 1895년 초판본, 프랑스 동양언어문화학교 소장



▲ 『국문독본』 표지, 1903년 재판본, 미국 연청도서관 소장






▲ 영화여학교 초기 모습

Dictionary)』을 도쿄 교문칸(敎文館)에서 간행했다. 존스는 1892년에 인천에 파견돼 1903년까지 거주했으며, 1906년에 제물포지역 감리사로 임명받고 1907년부터 서울지역 감리사를 겸직하다가 1909년 7월에 영구 귀국했다. 『국문독본』은 당연히 인천에서 썼으며, 『영한조던』 서문에서 편찬과 교정을 도와준 한국인들의 이름을 소개한 것을 보면 이 책도 역시 인천에서 거주하던 시기부터 편찬하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존스 부부의 책이 몇 년에 걸쳐 나오자, 1903년 『데국신문』에는 이 책들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사설이 실렸다. 이 사설은 존스 부인의 『초학언문』과 존스의 『국문독본』, 험버트가 쓴 『사민필지』와 함께 학부에서 초등교육 교재로 만든 『심산초학』과 『국문산술』을 소개했다. 이 책들의 공통점은 지금까지 지식인의 언어였던 한문이 아니라 국문으로 썼다는 점과 소학교 교재라는 점이다. 『초학언문』이 『데국신문』

사설에 소개된 1903년에는 한 해에 1만 부나 팔려, 감리 교출판사 간행물 가운데 달력 다음으로 많이 팔렸다. 존스 부인이 영화여학교를 설립했으니 당연히 이 책을 인천에서 국문 교재로 사용했겠지만, 『초학언문』 8판 표지에 “Pai Chai Educational Series”라고 쓴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배재학당을 비롯한 전국 여러 학교에서 이 책을 사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인천에서 쓴 책이 인천을 넘어서 전국적으로 팔리고 읽혔다.

영화여학교의 첫 번째 여학생은 한국어 교사 강재형의 딸이었다. 또한 이화여대 초대 총장을 지낸 김할란 박사, 이화학당의 서은숙 이사장, 손기정 선수의 가슴에서 일장기를 지워버린 사진을 게재해 동아일보를 정간당하게 한 이길용 기자 등이 영화학교에 입학해 『초학언문』으로 시작한 학문의 길을 거쳐 큰 인물이 됐다. 



## 마음이 쉬는 시간 ‘마쉬’를 운영하는 자매 김미영 & 김지영

글 정미리(편집위원) | 사진 조오다(편집위원)

동화책 전문 독립서점 ‘마쉬’

📍 인천시 동구 서해대로513번길 11

🕒 수 ~ 토 12:00~16:00

배다리 헌책방 골목, 100년 넘는 한옥에 ‘마쉬’가 있다. 벽면을 가득 메운 책장과 알록달록한 그림 책이 반기는 이곳은 그림책 테라피스트 김미영 씨와 심리 상담가이자 탕글러(젠탕글 하는 사람)인 김지영 씨가 운영하는 책방 겸 공방이다. ‘마음이 쉬는 시간’을 의미하는 마쉬는 말 그대로 지친 마음을 다독이고 일상에 쉼표를 찍기 위해 자매가 마련한 따스한 공간이다.



## 마음도 휴식이 필요해

몸이 아프면 신호가 오고 치료받으면 낫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다. 금방 알아차리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떻게 치료할지 몰라 방치하는 경우가 많다. 김미영 씨 역시 마음의 병을 늦게 알아차린 경우다. 20년 차 직장인이자 쌍둥이를 키우는 워킹맘이었던 그는 이십 년의 직장 생활 중 무려 17년을 한 직장에 몸담으며 말 그대로 커리어우먼의 삶을 살았다. “인센티브도 여러 번 받고 회사에서 해외여행도 보내줄 만큼 성과가 좋은 편이었어요. 그만큼 퇴근해서도, 심지어 꿈에서도 일할 정도로 일 생각만 하고 살았죠. 마음이 병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에요.” 일 밖에 모르던 그가 마음의 병을 알아차린 건 아이들을 위해 그림책을 펴를 때다. ‘나는 누구일까?’ ‘나는 무엇을 좋아할까?’ ‘나는 무엇을 하고 살까?’ 그림책에서 다루는 근원적 질문이 그동안 앞만 보고 달렸던 그에게 브레이크를 걸어준 것. “그동안 제 인생은 명사로 통했어요.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것. 즉 이름과 숫자가 더 중요했죠. 그런데 그림책을 만난 후 명사가 아닌 동사로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삶을 살 것인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가 더 중요해진 것이죠.” 그림책을 통해 스스로를 발견하고 삶의 방향을 고민하기 시작한 김미영 씨는 그림책으로 사람의 심리를 공부하는 그림책 테라피스트의 길을 걷게 되었다.

동생 김지영 씨 역시 언니 못지않게 앞만 보고 달리며 워커홀릭의 삶을 살았다. 7년의 직장 생활을 마치고 4년간 자기 사업을 운영하며 쉼 없이 일했다. 별명이 ‘쌈닭’이었을 정도로 누군가와 싸우는 일, 의견을 주장하는 일이 잦았고 예민한 성격과 언성 높은 말투는 고스란히 몸에 배었다. “사업을 하다 보니 쉬는 날 구분 없이 하루 종일 일만 했어요. 그때는 그렇게 사는 게 옳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줄 알았으니까요. 잠시 일을 쉬었을 때 후폭풍이 세계 오더라고요. 소화는 안 되고 속은 쓰리고, 병원에선 이상 없다는데 아픔은 계속됐죠. 결국 정신과를 갔더니 금세 낫더라고요. 마음의 병이었던 거예요.” 언니 김지영 씨가 그림책으로 마음의 병을 고쳤다면 동생 김지영 씨는 명상의 도움을 받았다. 흔히 명상이라고 하면 가만히 앉아서 눈



▲ 젠탱글은 짜임새 있는 패턴을 반복해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예술의 한 형태다.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라 잡념이 사라지고 머리를 비우는 명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을 감는 행위로 알고 있지만 사실 명상 효과를 볼 수 있는 방법에는 청소나 운동 등 여러 가지가 있다. 지가 있다. 그중 그가 택한 방법은 젠탱글(zentangle)이다. 선(zen)과 얽히다(tangle)를 합친 젠탱글은 흰 종이에 일정한 패턴을 반복적으로 그리는 예술의 한 형태를 일컫는다. 고도의 집중력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하다 보면 잡념이 사라지고 스트레스가 풀려 자연스럽게 명상 효과를 볼 수 있다. 젠탱글로 마음의 병을 치유한 김지영 씨는 현재 마쉬에서 젠탱글 클래스를 진행하며 사람들의 치유를 돕고 있다.

## 자매가 전하는 ‘마음 쉬는 법’

각자의 방식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한 자매는 같은 상황에 놓인 사람을 위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2019년 11월, 배다리 헌책방 골목에 지금의 ‘마쉬’를 오픈했다. 군산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들이 인천 배다리에 터를 잡은 이유는 동네가 주는 안정감 때문이었다. “저희가 시골에서 태어나고 자라서인지 높은 건물이 있는 도심보다 배다리처럼 낮은 건물이 있는 동네에 있을 때 안정감이 들었어요. 또 제가 그림책을 다루고 책을 좋아하다 보니 언젠가 책방을 연다면 배다리 헌책방 골목에 열고 싶기도 했고요.” ‘마쉬’가 오픈한 시기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가 시행됐던 시기다. 오픈하자마자 한 달 동안 문을 닫아야 했고 대면으로 이루어지는 상담과 수업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바로 무산됐어요. 영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는 등 정부 방침을 잘 따르면 이 상황이 금방 끝날 줄 알았지만 헛된 기대였죠. 저희 나름대로 대안을 찾아야 했어요.” 팬데믹이 지속되자 온라인 수업을 열거나 직접 찾아가는 출장 수업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하며 운영을 지속했다.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이어 나갈 수 있던 이유는 애초에 돈을 목적으로 시작한 게 아니었기 때문이



▲ 그림책 테라피스트로 활동하는 언니 김미영 씨. 양손에 들고 있는 『시간이 보이나요?』는 그가 직접 쓴 그림책이다.

다. “돈을 보고 ‘마쉬’를 오픈했다면 진작에 접었겠죠. 처음에는 ‘마쉬’가 아니라 ‘놀이터’였어요. 사람들과 쉬고 놀며 마음 편히 있을 수 있는 공간이 만드는 게 목적이었으니까요.”

마음이 쉬는 시간을 의미하는 ‘마쉬’. 자매는 어떠한 방법으로 마음을 쉬게 한다는 걸까? 첫 번째 방법은 김지영 씨의 카드 상담으로 시작된다. 카드 상담으로 의뢰인의 심경과 고만을 파악한 후 이를 다스릴 수 있는 그림책을 김미영 씨가 골라 주는 방식이다. 단순히 고민 상담을 넘어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체계적이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한 번 받은 분이 소문도 내주고, 멀리 지방에서 오는 분도 있어요.” 두 번째 방법은 언니 김미영 씨의 그림책 수업과 동생 김지영 씨의 탱글루 수업이다. 보통 그림책은 아이들이 읽는 책으로 알려져 있다. 성인에게도 그림책을 읽는 효과가 있는지, 있다면 어느 정도인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했다. “모든 성인들은 과거에 어린 아이였고 내면에 그 어린아이가 여전히 살고 있어요. 아이들의 감정과 어른의 감정은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어른 속에 살고 있는 내면 아이의 마음이 그림책 저변에 깔려 있기 때문에 성인들도 공감을 얻고 치유받을 수 있죠.” 세 번째 방법은 작가 특강과 독서 모임이다. 인천이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임을 인지한 이들은 각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을 ‘마쉬’로



◀ 탱글루로 활동 중인 동생 김지영 씨.




불러 지역을 활성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엄마 마중』의 김동성 작가, 『노도새』의 김숙 작가 등 저명한 작가들이 '마쉬'와 함께한 바 있다. 마지막 주 목요일 밤에는 독서 모임 '마쉬 책수다'가 열린다. 각자 읽은 책을 가져와 소개하고 이야기하며 서로를 공감하고 위로한다. 책 한 권으로 따뜻한 마음을 주고받는, 마음이 온전히 쉴 수 있는 순간들이 '마쉬'에서 이루어지는 것.

## 자매가 꿈꾸는 '마쉬'

많은 사람이 마음 쉴 수 있는 시간을 갖길 바라는 마음으로 자매가 합심해 오픈한 '마쉬'. 둘은 사람들의 마음을 돌보면서 오히려 자신들에게 큰 변화가 찾아왔다고 말한다. “가장 큰 변화는 제가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직장 생활을 했을 때는 대화에서도 늘 효율성을 따졌거든요. 핵심만 말하려 했고 필요한 말만 들으려 했으니까요. 지금은 어떤 말이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만큼 많은 사람의 말을 듣다 보니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

요, 세상에는 검은색과 흰색만 존재하는 줄 알았지만, 지금은 무수히 많은 색깔이 존재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이 틀린 게 아니라 다르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 거죠”라고 김미영 씨는 말한다. 예민하고 조금한 성격이었던 동생 김지영 씨는 “예전에는 화도 내고 주장을 굽히지 않으려 했다면 지금은 한 발짝 물러서서 ‘이 사람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먼저 생각한다. 말투도 한결 차분해졌고”라며 자신에게 찾아온 긍정적인 변화를 이야기했다.

요즘 자매는 어떻게 하면 '마쉬'가 수입 구조를 창출할 수 있을지 고민 중이다. 돈을 좇아 책방을 연 것은 아니지만 책방을 꿈꾸는 사람에게 마쉬가 좋은 예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다. “책방은 많이 생겼다가 그만큼 많이 사라지는 업종 중 하나예요. '마쉬'를 운영한 지 벌써 4년이 되었고, 그동안 저희처럼 책방이나 공방을 운영하고 싶다는 사람도 많이 생겼어요. 책방은 돈 되는 일이 아니기에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지 않지만, 진심으로 이 길을 걷고 싶은 분을 위해서라도 최소한 '마쉬'가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책방이 되었으면 해요.” 



▲ 100년 넘는 한옥에 자리한 '마쉬' 한옥이 주는 안정감과 편안함이 좋아 최대한 개조하지 않고 그대로를 살렸다.

# 기자수첩

제 1 호 글·사진 노승환(MBN 기자)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 몰랐거나 모른 척했거나 ‘인천의 첫인상’

### |||| 새로운 연재를 시작하며

과거 역사를 탐구하는 것만큼, 먼 훗날 역사가 될 우리 시대의 모습을 남기는 일도 중요합니다. 100년, 200년 후에 우리 시대의 어떤 모습이 역사가 되어 있을까요? 현직 기자의 눈으로 인천을 바라보고 기록을 남기는 ‘인천기자수첩’ 연재를 시작합니다.

막말. 들으면 화가 난다. 그런데 이유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막말이 틀린 말이란 이유만으로 화가 나진 않는다. 많은 경우 막말은 맞는 말이라 화가 난다.

‘이부망천’. 2018년, 서울 변방에 살다 이혼하면 부천, 거기에다 망하기까지 하면 인천에 산다는 말이 그랬다. 사람들은 화냈다. 화낸 이유의 절반은 그 말이 일부(사실 상당 부분) 진실이

기 때문이었다. 이부망천은 ‘서울 > 부천 > 인천’이라는 경제적 격차를 말한 것이다. 사실이 그렇다. 똑같은 교보빌딩이지만 인천 옛 시민회관 사거리의 교보빌딩은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보다 높이도 절반, 폭도 절반밖에 안 된다. 이혼하고 망했다는 말은 그저 과한 비유였을 뿐이다. 사실은 서울은 잘 살고 인천은 상대적으로 못 산다는 ‘실체적 진실’에 기분이 나빴던 것이다. 자존심이 상했던 것이다.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인천의 ‘첫인상’이다. 만약 인천이 처음인 누군가가 이부망천, 그리고 그에 앞서 인천을 격하시켰던 ‘마계 인천’이란 말 말고 다른 사전적 정보가 거의 없이 인천에 온다면 과연 인천의 첫인상은 어떻게 하고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 이 시커먼 장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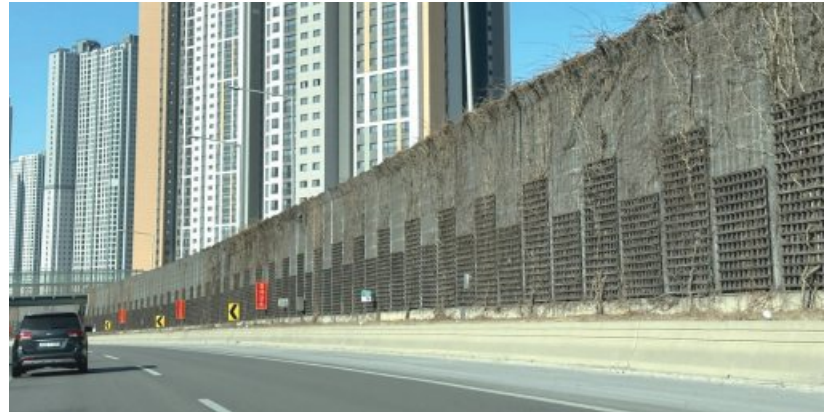
우선 과거 경인고속도로 서인천나들목이다. 서울서 인천으로 달릴 때 처음 만나기로야 부평이 먼저다. 하지만 직선으로 달리던 고속도로가 갑자기 90도로 꺾이는 이곳에 다다르면 ‘이제 진짜 인천이구나’라는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방음벽 때문이다. 고무호스로 슬쩍 물을 뿌려도 ‘땀국물’이 짹짹 흐를 것 같다. 온통 시커멓다. 이런 시커먼 장벽이 서인천나들목에서 인천항까지 무려 10km가량 이어진다.

서울에서 출발해 부평나들목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이 10km 중 어딘가에서 인천으로 진입한다. 그렇게 인천에 오는 사람이 1년이면 수십만 명은 될 것이다. 그들에겐 이 시커먼 장벽이 인천의 인상, 혹은 첫인상이다.

방음벽은 2017년 12월 경인고속도로가 일반도로로 바뀌면서 한국도로공사가 인천 서구청에 넘겨줬다. 인천



시는 도로를 넘겨받았다. 인천시는 이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를 100km/h에서 70km/h로 낮추면서 50년간 인천을 반으로 갈라놓은 도로의 방음벽을 모두 걷어내고 대대적인 도시재생사업을 벌인다고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5년이 넘도록 도시재생은 언감생심, 당장 없앨 것 같던 방음벽조차 없애지 않고 있다.



서구에 물어보니 5년이 넘도록 방음벽 청소를 한 번도 안 했다고 한다. 어차피 철거될 방음벽이라 안 했다고 한다. 알아 보니 5년여 전 넘겨받은 경인고속도로는 올해부터야 일반도로 전환 공사가 시작된다고 한다. 철차가 있고 예산에 한계가 있을 테니 5

” **5년 넘게  
물청소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옛 경인고속도로  
방음벽** ”

년 정도는 걸린다 치자. 하지만 어차피 철거할 방음벽이라도 물청소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어느 누가 아파트 분양받아 입주까지 3년이 남았다고, 지금 사는 집은 어차피 떠날 집이라면서 3년 동안 청소 한 번 안 하고 더럽게 살까.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을 나와 인천시청으로 향하면 만나게 되는 인천시 아치.

## 각하를 영접하는 시간(?)

다음은 어떤 아치에 관한 얘기다. 제2경인고속도로 남동나들목을 나와 인천시청으로 향하면 높이 16m, 폭 41m인 아치가 나타난다. 영어로 ‘Welcome to Incheon’이란 세 단어와 그 양쪽에 한자로 ‘歡(환)’과 ‘迎(영)’이 쓰여 있다.

어디까지나 주관적 감상이다. 난

이 아치를 볼 때마다 인천이 여전히 1970~80년대인 것만 같다. 많은 이가 기억하듯이 인천에는 주요 대로에 과거 올림픽이나 전국체전 선수단의 퍼레이드나 각하를 비롯한 ‘높으신’ 분들의 인천 ‘행차’ 때 딱 이런 모양의 아치에 한글과 한문을 섞은 ‘환영’, 혹은 ‘경축’ 뭐 그런 말들이 써 붙었더랬다.

2001년, ‘무려’ 새천년의 시작에 세웠다는 이 아치는 20년이 더 지난 지금도 각하를 맞이해야 할 것처럼 서 있다. 신문과 관공서의 공문에서 한자가 사라진 지 십수 년은 됐다. 중국 간자가 아니라면 상점의 간판에서 한

자를 안 쓰기는 수십 년이 지났다. 그런데 인천의 간판이라고 세운 아치에 ‘버젓이’ 저런 한자라니….

게다가 아치 주변은 인천에서 가장 ‘지저분’한 곳이다. 몇십 만㎡는 되는 아치 주변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인 건 알겠으나 수십 동의 비닐하우스(상가)와 방치되거나 인도에 올라타 줄을 선 자동차와 트럭들, 썩은 물이 흐르는 실개천들, 온갖 잡초가 드넓은 들판에 가득하다. 이 일대만 보면 인천이 인구 300만에 서울, 부산 다음가는 대한민국 3대 도시인지 믿기지 않는다. 이 길로 인천에 처음 오는 사람도 1년이면 수십만 명은 될 것이다.



## ‘이부망천’?


인천의 첫인상을 말하면서 대체 뭘 근거로 서인천나들목과 남동나들목 근처를 골랐느냐고 물으면 사실 근거 같은 건 없다. 허나 어딜 고르든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엇비슷하기 때문이다.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면 이 질문 하나는 받아주면 좋겠다. 그게 어디든 “누군가에게 인천이 그런 인상으로 비쳐도 괜찮습니까?”

그러면서 막말이란 단어를 다시금 되새기는 것이다. ‘이부망천’뿐이겠는가. ‘막계 인천’도 있고 무엇보다 전국 17개 시도 중 범죄 발생률이 적어도 평균 이상으로 낮은데도 무슨 범죄(특히 아동학대)만 일어나면 인천은 ‘범죄도시’ 취급을 받는다. 그 막말들이 품고 있는 일말의 진실에 난 더 많은 인천 사람이 뼈가 좀 아팠으면 하고 소박하게 바랄 뿐이다.

물론 난 돈과 인격은 무관하다고 철석같이 믿는다. 사람은 벤틀리 탄다 해서 귀하지 않고 모닝 탄다고 천하지 않다. 다 아는 얘기이지만 귀천은 스스로 어떻게 여기느냐에 달렸다고 믿는다. 그런 점에서 난 내가 태어난 고향이 적어도 아주 고귀하진 않다고 생각한다. 이건 특정인이나 특정 집단을 가리키는 말은 아니다. 인

천이란 지역을 주어로 할 때 얘기다.

인천은 대체로 자신을 아끼고 가꾸고 보살피기를 잘 못한다고 본다. 서울과의 빈부격차를 떠나 대체로 지금까지진 것을 살뜰하게 살피지 않는다. 서인천나들목의 더러운 벽이 5년 넘게 방치된다는 사실, 남동나들목의 보잘것없는 풍광을 수십 년 동안 그 누구도 어찌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빙산의 일각이다. 너무나 많은 장소가 저버리고 후지다. 거의 아무도 아끼고 가꾸고 보살피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이게 인천을 두고 나온 막말의 일말의 진실이다. 대다수는 이 진실을 몰랐을 것이고(아마 관심조차 없었을 텐데) 기분이 나빴다면 분명 모른 척 해온 인천의 속살을 들킨 것처럼 뜨끔해서 기분이 나빴을 것 같다.

인천을 폄훼하려고 쓴 글은 아니다. 나고 자라 평생을 산 곳인데 그럴 리 있을까. 그저 인천을 폄훼하는 ‘막말’이 대체 뭐라고, 서울보다 좀 못 사는 거 그게 뭐 어쨌다고, 사람 못 살 동네처럼 도매금으로 매도당하는 바로 그 폄훼가 무참해서 썼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인천을 손톱만큼이라도 살 만한 동네로 만들려고 애쓰시는 많은 분께는 송구스럽게 그지없다. 



아치의 이름은  
**‘인천의 꿈’**이다. 하지만,  
아치 아래에 설치된 이 명판은  
글씨가 너무 작아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는  
내용을 알 수 없다.  
걸어가서 본다면 가장 가까운  
버스 정류장에서도 200m를  
걸어가야 한다.

# 보는 것을 사랑한다 愛觀

글 양진채(소설가)



감독 윤기형

출연 박정자, 최불암, 한명순, 전무송, 지상렬 외

장르 다큐멘터리

개봉 2021. 10. 28.

시네마인천





‘보는 것을 사랑한다’라니, 영화 제목 치고 좀 심심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소? 당연히 감독도 알 테지. 그러나 이 제목 말고는 쓸 수 없었을 것이요, 대중은 이 영화 제목을 보고 펄쩍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야 하오. 없다면, 뭘 썬나락 까먹는 소린지 모르겠다면 당신은 인천을 사랑하지 않거나 찌꺼, 곁핍기식으로 좋아하는 것은 아닌지 가슴에 손을 얹고 진중하게 생각해봐야 할 것이요, ‘보는 것을 사랑한다’라는 제목 그대로 ‘애관(愛觀)극장에 관한 이야기니까.



이보시오, 뭇 쫌 아는 척하려면 제대로 하시오, 애관극장의 애관은 한자로 쓰면 愛觀이 아니라 愛館이요, 사랑애, 집 관 자란 말이요.

내 그럴 줄 알았소, 이쯤에서 인천을 사랑한다 자부하는 이가 한 수 가르쳐주겠다는 듯이 나서서 한소리 안 하면, 이 또한 섭섭한 일일 터. 왜 아니겠소, 애관극장의 본래 한자는 덕의 말처럼 愛館이요, 사랑하는 집. 그런데 그 공간이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니, 사랑한다는 것은 곧 영화 보는 것을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겠소. 하여, 감독은 애관의 한자를 잘 알고 있지만 그 뜻을 더 크게 해석한 것이요.

뭇 하나 물읍시다. 그런데 애관극장이 그 신포시장 건너편 싸리재 가는 길목, 그러니까 그 옛날 경성으로 가던 길에 있던 그 애관극장이 맞소? 내 지금 반백이 넘었고, 애관극장은 혈기 왕성한 그 시절, 신포동 시장이며 지하상가가 사람들로 떠밀려 다니던 시절에 한창 들락거리며 가본 뒤로, 요즘에는 애들하고 CGV니, 롯데시네마니 하는 곳만 다녀서 그 영화관이 진즉에 없어진 줄 알았더니 여쭙 용케 남아 있던 말이요?

맞소, 그 애관극장이요, 영화관 아니고 극장.

참 따지기 좋아하는 양반이구려, 극장이나 영화관이나 다 영화를 보여주는 곳 아니요, 그 말이 그 말이지 무슨 다른 뜻이 있단 말이요?

독립된 건물에 영화만 상영하는 곳이 극장이고, 복합쇼핑몰 같은 건물의 몇 개 층에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이 영화관이에요. 동네 구멍가게 같은 극장 다 먹어 치운 곳이 영화관이란 말이요, 내가 까칠한 게 아니고 심사가 좀 복잡해서 그렇소. 인천에는 겨우 애관극장과 미림극장만이 극장으로 남아 있는 실정이고, 게다가 애관극장은 120년이 넘는 우리나라 최초의 극장인데 이 극장들도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운명이 되다 보니 그렇게 됐어요.

그 말을 들으니 쫌 미안해지는구려, 돈만 내고 영화를 보면 그만이라고 생각한 내가 쫌 부끄럽기도 하고, 감독도 그래서 이 영화를 만들었나 보요?

그렇소, 가치로 따질 수 없는 시간을 품고 그 자리를 지킨 극장인데 극장에 대한 변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다는 걸 알고 윤기형 감독이 카메라를 들게 된 것이요, 사실 슬쩍 고백하자면 내 장편소설 『변사 기담』을 쓰게 된 계기도 윤기형 감독과 비슷하오, 인천을 배경으로 한 장편소설을 고민하고 있을 때 애관극장의 역사를 알게 됐소, 가슴이 두근거립



디다. 한국 최초, 꼭 그런 것이 아니어도 내 20대 때에 들락거리던 그 극장이 그렇게 오랫동안 저 자리에 있었다니, 나는 미처 모르지만, 극장을 거쳐 간 수많은 사람의 생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기분이 들지 않겠소. 그때는 개항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고, 그럼 아직 발성영화가 나오기 이전, 무성영화 시기겠군. 그렇다면 영화를 해설해주는 변사가 있었을 테고, 당시 변사를 주인공으로 한 장편소설을 써 볼까? 그 당시 변사는 극장에서 영상이 아니라 직접 만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연예인 아닌가. 그 인기가 지금의 아이돌 못지않아 영화 끝나는 시간에 맞춰 기생집 인력거가 줄줄이 대기하지 않았던가. 예인. 말로 먹고사는 변사와 글로 먹고사는 소설가. 뭔가 번뜩이지 않소? 그렇게 『변사 기담』이 태어났소. 윤기형 감독도 그랬을 거요. 영화를 찍는 사람과 그것을 상영하는 극장. 영화를 찍고 상영관을 잡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상영관이 잡히고, 영화를 상영하는 그 희열. 얼마나 감격에 차겠소. 영화를 상영하는 극장이 개항과 더불어 한 생을 하고도 아직 남아 있다는 걸 알고야 가만히 있을 감독이 있겠소? 그러다 소설이나 영화가 대박 나서 애관극장에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살릴 수 있다면 그 거야말로 펄 먹고 알 먹기, 도량 치고 가재 잡는 일거양득까지! 애관, 미림극장은 말할 것도 없고, 오성, 인형, 문화, 중앙, 키네마, 현대, 동방극장 등등 20여 개 가까이 극장이 있었던 시네마 천국 인천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생각만 해도 신명 나는 일이잖소.

이 영화는 인천의 최초 극장 ‘애관극장’을 살리기 위한 다큐멘터리 영화요, 극영화가 아니니 인간의 섬세한 감정 흐름

이나 멜로, 스펙터클한 액션을 기대해선 곤란하오. 제록만큼 심심할 수 있소. 대신 감독의 우직한 독심이 있소. 인터뷰하는 사람의 진심이 그대로 담겨 있소. 진한 설령탕에 소금을 넣기 전의 그 맛과 닮았다고 생각하오. 내가 아는 이는 그 맛이 좋아 소금을 넣지 않은 설령탕을 즐기는 걸 봤소. 진정한 설령탕의 장인이라 생각하오.

영화는 4부로 나뉘어 애관극장을 중심으로 한 인천의 극장 역사, 애관극장을 기억하는 사람들, 애관극장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 극장의 미래 등 극장의 연대기 순으로 진행되오. 일제강점기 속에서 정치국이 설립한 협률사부터 애관극장으로의 변천사를 신문 자료와 애관극장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 들을 수 있소.

1945년 8월 15일 감격스러운 그날, 군중 수백 명이 만세를 외치며 애관 앞길을 메웠다는 얘기를 들어봤소? 애관극장에 영화를 보려는 사람들로 미어터졌다는, 그야말로 폭발할 것 같았다고 증언하는 박정자 배우 얘기는? 애관극장에서 처음 〈처용의 노래〉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다는 최불암 배우나 애관극장이 공연 데뷔 무대였었다는 한명순 가수 얘기, 한때 애관극장 간판 그림을 그렸다는 전무송 배우 얘기나 애관극장 무대에 올라야 성공했다는 소릴 들었다는 개그맨 지상렬 씨 얘기는 또 이 영화가 아니었다면 어디 가서 들겠소. 70년 가까이 애관극장을 관리했던, 한평생을 극장에 바친 분이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도 애관극장은 오랫동안 그 공로를 인정해 월급을 주었다는 미담도 있소. 이 삭막한 세상이 아니라 정이 넘치던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요, 애관의 120년이 훨씬 넘는 세월을 생각한다면 이런




애긴 어쩌면 새 발의 피일 테요.

이제 극장의 미래를 얘기할 때요. 시네마천국이었던 인천의 극장은 1990년대 중반, 멀티플렉스의 침공에 연합전술은커녕, 각개전투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태풍에 낙엽 지듯 쓰러졌소. 곳곳이 버텼던 애관극장과 미림극장도 앞날이 안개 속이래요.

미림극장은 건물주가 바뀌어, 길 건너편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입주가 끝나면 극장 건물이 헐릴지도 모르는 형편이요, 애관극장도 몇 차례 휘청거렸고, 그때마다 애관극장 살리기 시민모임이 나섰고, 애관극장 대표도 이 애관의 역사를 어떻게든 이어가 보려고 경영이 어려워도 버티고 또 버텼으나 이젠 한계에 다다른 듯하오. 인천시에서 매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했지만, 워낙 건물 규모가 크다 보니 이 또한 오리무중으로 흘러가는 중이요, 절로 한숨이 나오는 상황이 아닐 수 없소.

보존을 얘기할 때 필히 그 가치를 따져봐야 할 테지요. 나는 애관극장이 12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인천 시민과 희로

애락을 같이한 것만으로도 그 가치가 차고 넘친다고 생각하오, 천장에 남은 당시 일본식 지붕 건축양식 등은 거들 뿐이오, 나는 여기에 인천 시민의 자존심이라는 가치를 엮고 싶소. 애관극장이 건물값이 상당하다는 것은 이미 아오, 그러나 그게 인천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또다시 조족지혈 운운해야 할 판이요, 이렇게 역사 깊은 건물 하나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는 인천 시민이 될까 봐 부끄러울 따름이요. 이런 건물을 지켜낸 인천 시민의 품격, 무형의 도시 품격의 가치를 따진다면 이야기는 크게 달라질 것인데 한없이 아쉽기만 하오.

이쯤에서 관동갤러리 도다 이쿠코 선생의 말이 떠오르오. 건물은 그 건물을 정말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야 제대로 지켜질 수 있다는 말이었소, 그대와 내가 잇고 있던 그 시기에 도 묵묵히 그 자리에 지켜서 있던 애관극장에 이제는 우리가 애정을 보내야 할 때가 아닌가 하오, 그게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든 의미일 테고, 인천에 대한, 애관극장에 대한 우리의 예의 아니겠소? 






# 식구(食口) 음식으로 하나된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

글 · 사진 김유나(인천시립박물관 연구원)



십 년 전, 한 일본인 교수가 인천시립박물관을 찾았다. 기타큐슈 시립대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한국과 일본의 음식문화를 가르치고 있다던 그는 교류 전시를 제안했다. 파일럿으로 두 번의 작은 전시를 개최하고 2015년 8월에 인천시립박물관은 기타큐슈 시립대학교와 교류 협약을 체결했다. 한국과 일본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우리의 약속은 세 가지였다. ①인천시립박물관 청년 자원봉사자와 기타큐슈시립대학교 문학부 대학생이 매년 서로의 국가를 방문하며 ②양국의 음식 문화를 비교해보고 ③그 결과를 전시와 시민 대상 음식 만들기 교육을 개최해 선보이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두 나라의 젊은이들이 모여 비슷하면서도 다른 음식을 고르고, 공부하고, 전시하고..., 함께 밥을 먹으며 식구가 되어갔다.

이번 전시는 그간의 문화 교류를 총망라해 선보이는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청년 문화 교류를 시작한 2016년부터 올해까지 총 70여 명의 학생이 참여해 국수, 명절음식, 보존음식, 쇠고기음식, 스콜푸드를 시민들에게 선보였다. 그렇게 맞이한 2023년, 코로나19로 인한 길고 긴 온라인 교류를 끝마치고 1월에는 일본을, 2월에는 한국을 찾아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수 있었다. 정치적 갈등,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언어의 차이. 그 어떤 것도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려는 두 나라 청년들의 마음을 막지 못했다. 더욱 애тет했던 이번 프로그램이 끝날 무렵 한 친구가 말했다. “한국 친구들을 만나기 전에는 모든 한국인이 일본인을 싫어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아니라는 걸 알아요.” 평화로 가득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문화 교류는 계속되어야 한다. 







# 다시, 비상

인천유나이티드 F. C. 2003-2023

2003년 8월 인천에 시민축구단이 탄생했다.

축구단의 이름은 인천유나이티드였다.

많은 시민이 시민 주주가 되어 인천유나이티드를 응원했다.

이러한 응원에 부응하듯 2005년 K리그 준우승으로 비상했다.

그 후 세월이 흘러 어느덧 창단 20주년이 되었다.

그동안 인천유나이티드는 '비상'이 아닌 '잔류왕'의 굴레에 빠졌다.

하지만 2022년 리그 4위의 성적을 기록하였고,

2023년 아시아 무대로의 진출을 눈앞에 두고 있다.

구단, 선수, 팬의 동행으로 '다시 비상'하는 인천유나이티드를 전시로 담고자 한다.

글 최병훈(인천시립박물관 연구원)



# EXHIBITION

## 다시, 비상

🔊 시민구단 인천유나이티드의  
20년 역사와 이야기

📅 4. 4 ~ 6. 18

🏛 인천시립박물관  
기획전시실



## 식구<sup>食口</sup>

음식으로 하나된  
한국과 일본의 청년들

🔊 두 나라의  
비슷하면서도 다른  
음식을 탐구하며  
문화교류 해온 이야기

📅 2. 24 ~ 4. 2

🏛 인천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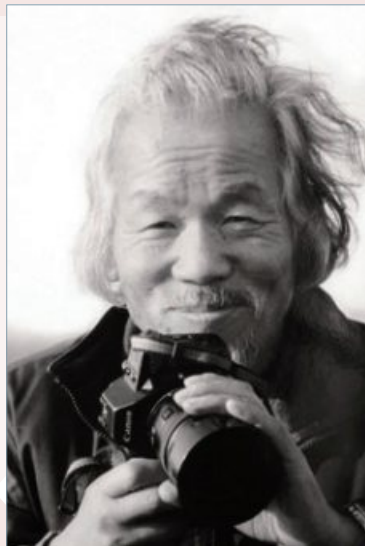


## 김찬삼, 여행과 기록

🔊 한국 최초의 세계여행가  
김찬삼의 여행기록

📅 4. 11 ~ 6. 6

🏛 인천시립박물관  
갤러리 한나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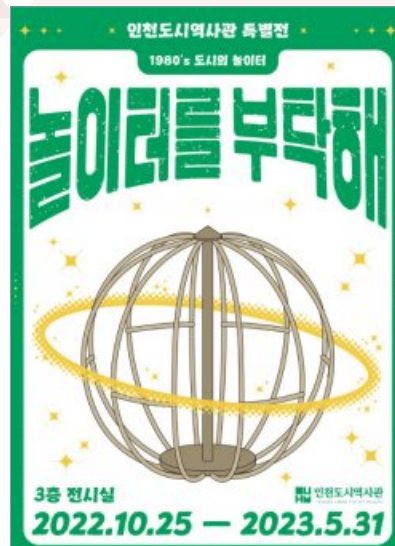


## 놀이터를 부탁해

🔊 1980년대 도시의 놀이터

📅 ~ 5. 31

🏛 인천도시역사관  
3층 전시실



## 인천시립박물관

3. 31 제10회 석남 이경성 미술이론가상 시상식 (수상자 이지호 전남도립미술관장)

4. 11 2022년도 시립박물관 유물기증자를 위한 기증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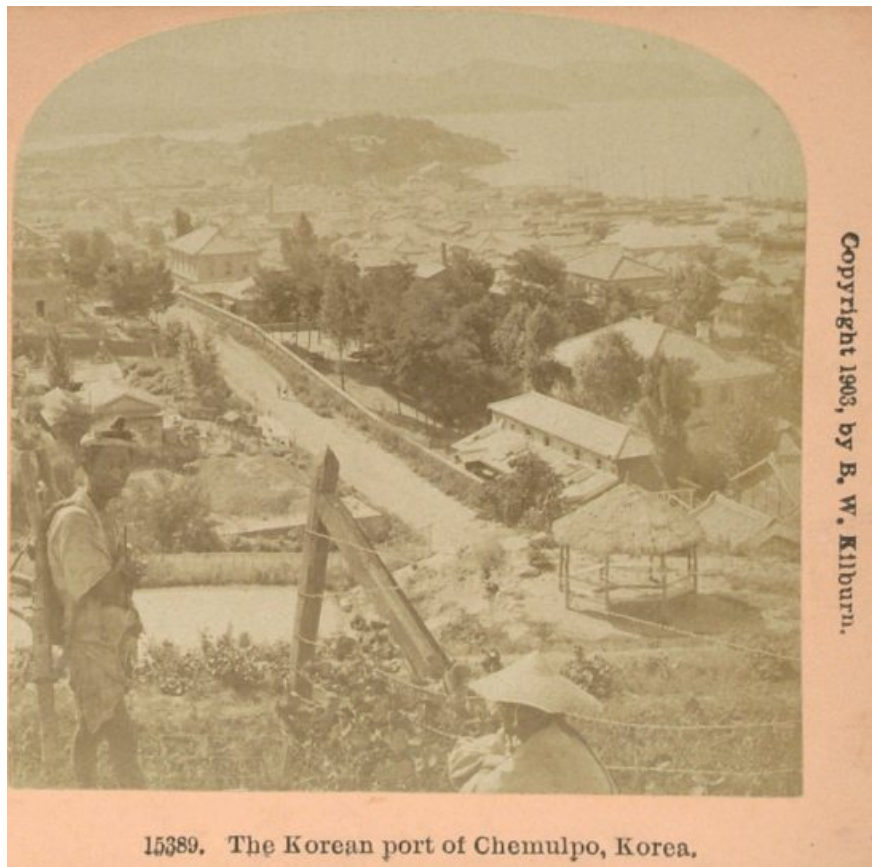
## 검단선사박물관

5월 선사시대 유적과 유물을 놀이로 체험할 수 있는 '알강달강 선사시대 놀이터' 개최



# EDUCATION

	기관	교육명	교육내용	교육기간	대상	신청방법
어린이	인천시립박물관	꼬꼬마, 가재! 박물관으로	전시 관람 및 미니북 만들기	4 ~ 6월, 매주 화요일 10~11시	6 ~ 7세 유아 단체 (최대 25명)	3. 20 ~ 3. 24 홈페이지 신청 후 추첨
		가재! 박물관으로	전시 관람 및 나만의 유물장 만들기	4 ~ 6월, 매주 수 ~ 금요일 10~12시	초등학교 1 ~ 6학년 학급 단체 (최대 25명)	3. 6 ~ 3. 24 홈페이지 신청 후 추첨
				4. 8 / 5.13 / 6.10 토요일 14 ~ 16시	초등학교 4 ~ 6학년 20명	홈페이지 선착순
	송암미술관	출동 열 두 수호신이 간다	십이지신 이해 및 클레이 연필 만들기	4 ~ 7월	초등학교 3 ~ 4학년	2. 14 ~ 3. 10 유선 협의 후 공문발송 선착순
		백투더조선	선비와 사군자 이해 및 매난국죽 체험, 찬 써보기	4 ~ 7월	초등학교 5 ~ 6학년	
	검단선사박물관	월강달강 선사시대 꼬마 놀이터	전시실 관람 및 주먹도끼 풍경 만들기	4 ~ 6월	유아 단체 (20명 내외)	홈페이지 선착순
	인천도시역사관	놀이터에서 만나!	뽕뽕토성과 함께 떠나는 놀이터 여행	4 ~ 6월, 매주 수, 금요일 10 ~ 12시	5 ~ 7세 유아 단체 (최대 25명)	3. 13 ~ 3. 24 홈페이지 선착순
		인천이 재밌다!	우리가 사는 도시 '인천'	5 ~ 6월, 매주 화, 목요일 10 ~ 12시	초등학교 3 ~ 4학년/ 5 ~ 6학년 학급 단체 (최대 30명)	3. 6 ~ 3. 24 유선 (032-850-6016) 선착순
청소년	송암미술관	꿈을 그리는 미술관	미술관의 직업군과 지류문화재 보존처리 체험	4 ~ 6월	중 · 고등학교 한 학급	2. 21 ~ 3. 10 유선 협의 후 공문 발송 선착순
성인	인천시립박물관	타박타박 인천	화수 · 화평동 도보 답사	4. 29 토요일	일반 시민 20명	4. 17 ~ 4. 25 홈페이지 선착순
	송암미술관	인문학으로 읽는 한국 서예	한국 근현대 서예와 인천 서예가 탐구	4. 5 ~ 4. 26 수요일 14 ~ 17시	일반 시민	3. 13 ~ 4. 3 유선 및 홈페이지 선착순
가족	인천시립박물관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전시 연계 만들기 체험	5. 20 / 6.17 토요일	6~13세 어린이 동반 가족	홈페이지 선착순
	검단선사박물관	주말N박물관 꼭꼭 숨어라 동물들이	선사시대 동물 이해 및 향초 방향제 만들기	4. 8 / 5.13 / 6.10, 10 ~ 12시	만 5세 ~ 초등 2학년 어린이 동반 가족 5팀	
		주말N박물관 선사랑 놀자!	선사시대 이해 및 실크스크린 활용 만들기	4. 8 / 5.13 / 6.10, 14 ~ 16시	초등 3학년 ~ 6학년 어린이 동반 가족 5팀	
기타	검단선사박물관	문화나눔교육	애니메이션 관람 및 주먹도끼 풍경 만들기	4 ~ 6월	인천 관내 특수학교 등 장애우 10명 이내	담당 교사 협의 후 접수



## 1903년 초여름, 개항장 인천의 풍경

미국의 사진가이자 스테레오부 출판업자로 유명했던 벤자민 킬번(B.W.Kilburn)이 1903년 초여름에 촬영한 입체사진 스테레오부 중 일부이다. 중앙의 큰길은 지금 중구청 뒷길로 당시 일본 조계와 각국 공동조계의 경계였다. 길의 오른쪽이 일본 조계, 왼쪽이 각국 조계에 해당한다. 길이 시작되는 곳 우측 숲 사이로 두 개의 굴뚝과 지붕이 보이는 2층 건물이 중구청 자리에 있던 일본영사관이고, 길 건너 왼쪽에 보이는 공터가 지금 아미 호텔이 위치한 곳으로 훗날 영국계 무역회사 홈링거 양행의 인천지점이 들어선다. 사진 왼쪽 아래의 큰길은 중구청에서 자유공원으로 오르는 언덕길이다.

촬영 장소는 남부교육청 맞은편 카페 '토촌' 자리로 당시 이곳은 각국 조계에 포함된 만국공원 부지였다. 사진 아래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행색이나 차림으로 보아 조선인 노동자로 보이며, 그 옆 초가지붕을 한 팔각 구조물은 공원 내 휴게소로 추정된다. 개항한 지 20년이 지난 1903년, 크고 작은 건물로 채워진 일본 조계와 달리 각국 조계는 여전히 비어있는 공터가 많아 보인다. 그로부터 다시 120년이 흐른 지금, 사진 속 건물 대부분이 사라지고 도시의 모습도 몰라보게 달라졌지만, 두 개의 길만은 여전히 여전히 많은 사람이 오가는 길로 기능하고 있다.